

삼한시대

역사시대의 전단계인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로서 영광을 비롯한 전남지역은 연맹왕국 삼한三韓의 하나인 마한馬韓에 속하였다. 영광에서는 영광읍 학정리 강변과 대마면의 수동·마동 유적 등 총 11개소에서 독·움무덤 등과 주거지가 확인되고, 여기에서 다양한 토기·철기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는 철기문화 후기(B.C. 전후~A.D.300)의 마한시대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영암과 나주 일대에 분포한 거대한 분구묘는 한 봉토 안에 독·돌방무덤이 안치되어 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자료에 해당한다.

한편 고대사회古代社會에 해당하는 시기의 고분은 10개소에서 확인되었는데, 주로 돌방무덤石室墳이 주류를 이룬다. 영광읍 대천고분은 이른 시기의 독무덤과의 관련성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법성면 월계고분은 장고분長鼓墳으로서 일본의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과 유사하다. 이는 이들 무덤의 축조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되는 것처럼 마한이 5세기 중엽까지 반남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웅관고분을 사용하면서 전성기에 달했으며, 이 시기에 백제식 돌방무덤을 축조하다가 백제에 병합된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영광지역 군장국가의 실체는 전혀 알 수 없으나 마한 54국 안에 편제된 '작은 나라小國'로서 고인돌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막로국莫盧國·모노비리국牟盧卑離國(영광읍), 고랍국古臘國(영산면), 신운신국臣雲臣國(군남면 남창리 일대)이 위치해 있었다고 비정되어 왔다. 이들 군장국가들은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독무덤 등의 대형 고분을 축조하면서 백제의 강성에 맞섰으나 4세기 후반 이후 전남지역에서 점차 백제식 돌방무덤이 조성되어간 것처럼 점차 백제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역시 전남지역은 근초고왕(346~374)의 마한 공격 이후에도 강력한 토착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동성왕(479~500)의 남방정벌에 따라 중앙의 통치력에 편제되어 갔다.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무덤과 돌방무덤이 병존한 것처럼 이들 군장국가의 토착적 기반은 강인했던 것이지만 백제의 중앙통치력에 의한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는 이 지역의 독무덤이 5세기 중엽 이후 백제 돌방무덤의 출현으로 점차 소멸되어간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